

2023년 3월 5일

금문교회 사순절 제2주일예배 GGPC Lent the Second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A Psalm for giving thanks.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2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3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4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5 For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

시편 Psalm 100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이를 먹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2월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써 고난 중에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며, 주신 명령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곧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28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고린도전서 11:23-29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아침 성찬 테이블 앞에

모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기석 목사님께서 분병 메시지를, 김명락 목사님께서 분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성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사도행전 Acts 16:6-10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And when they had come up to Mysia, they attempt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So, passing by Mysia, they went down to Troas.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And when Paul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sought to go on into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제2차 선교여행은 제1차 선교여행 자리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 제1차 선교여행은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 곧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라와 함께 출발했던 제2차 선교여행은 원래 목적을 극히 일부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섰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가 다음 행선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기록에서 “우리” 라는 복수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 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선교여행의 상당부분에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어서 누가복음까지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로를 막으셔서 고통을 겪던 중에 새로운 동역자 “누가” 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6:1에서 “디모데” 를 얻은 것과 비슷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 그 지방에서 디모데가 지역민들에게 칭찬 받는 자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은 곳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고난의 자리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디모데에 이어 누가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성령님께서 아시아 말씀사역을 막으셨습니다. 선교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And when they had come up to Mysia, they attempt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무시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일거수일투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So, passing by Mysia, they went down to Troas.

그들은 무시아를 지났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청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는 2002년 시애틀에서 말씀사역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다가와서 “콜롬비아가 목사님을 부릅니다”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And when Paul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sought to go on into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라는 복수대명사를 주목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복수대명사 “우리” 가 주도하는 독특한 형태로 바뀝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가 바울의 선교여행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후 3차선교여행은 물론 “로마로 가는 여행” 도 동행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7:25하의 “아멘신앙” 선포 때도 그는 배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이 최후 순교할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시아 대신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에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가입니다.

우리의 길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묵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모든 길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는 기획과 인도, 그리고 열매까지 모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협력” 하여 “선” 을 이루게 하십니다. 벌써 제2차 선교여행에서 “디모데” 를 부르셨고, 이제 “누가” 였습니다. 누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의 발걸음으로 선교팀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For we cannot do anything against the truth, but only for the truth.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3:8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When the Spirit of the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authority,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eclare to you the things that are to come.
요한복음 John 16:13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특별히 “목회” 와 “선교사역”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분이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에베소서 Ephesians 4:3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길을 “방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성령행전” 입니다.

지금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팀을 진리로써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진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사순절입니다. 거룩한 4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거룩한 은혜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